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6. Vol. 17. No. 2. pp. 159~183.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과 탄력성간의 관계*

이안영** · 김진이***

초 록

본 연구는 시설거주 청소년의 성에 따라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 및 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변인 간 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전국 18개 시설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4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남자 122명, 여자 133명, 총 255명이었다.
연구 결과 첫째,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이타성 및 탄력성에 성차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상 전체와 삶의 의미 전체, 삶의 의미 하위영역인 삶의 즐거움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자는 남자보다 이타성 하위영역인 협력·조력과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과 탄력성간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였다. 즉,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 수준이 높으면 탄력성 수준도 높았다. 셋째,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삶의 의미, 이타성, 자존감 순서로 유의하였다.

주제어 : 시설거주 청소년,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 탄력성력

---

* 이 논문은 2006년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가족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전문강사, 제1저자,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심리적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자아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조망, 자율성과 독립에 대한 기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의 다양성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박현선, 1998). 특히 시설거주 청소년(백승지, 2003)들은 청소년기 발달단계에서 비롯되는 어려움뿐 아니라 취약한 가정생활 환경에서 오는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200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실직·학대로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이 45.5%였다. 게다가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장영옥, 2001)과 편견 등 차별적인 사회환경도 실존한다. 시설거주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렇게 중첩된 위험요인들을 적응과 발달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박현정, 2001; 윤성지, 2001). 그러나 발달과 적응을 잘하는 시설거주 청소년들도 있다(권해수, 2002; 박혜영, 2004; 조규필, 2004). 이를 지지한 연구들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설거주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정거주 청소년보다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김종세, 1991; 정해수, 1999; 조현경, 1995; 최일경, 1996). 이러한 적응 현상이 탄력성(resilience)이다. 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개인이 보이는 긍정적 현상으로, 객관적인 위험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회복하는 개인자원이다. 이런 점에서,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과 탄력성의 보호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보호요인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권해수, 2002; 박혜영, 2004; 조규필, 2004). 탄력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탄력성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탄력성에 내재된 보호요인의 중재과정을 이해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Klohnen, 1996).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호요인의 중재과정을 이해하는 연구뿐 아니라 보호요인의 탐색 연구도 희소하다.

일반적으로 보호요인은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강희경, 2005; 권지은, 2002; 김승경·강문희, 2005; 정미현, 2003), 탄력성과 상호인과적인 관계(박현선, 1998; Hernandez, 1993)로 보고된다. 보호요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존감, 책임

감, 삶의 의미 등의 개인적 요인과, 가족의 지지,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 등의 가정적 요인, 그리고 교사나 전문가의 지지, 민주적인 학교 환경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시설거주 청소년이 가정거주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보호요인은 개인적 요인이다. 개인적 보호요인은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이나 빈곤과 같은 가정적 위험요인과는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택호, 2004). 또한 박현선(1998)은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대한 연령, 위험요인, 보호요인의 설명력 중에서 개인적 보호요인 23.8%, 사회환경적 보호요인 14.8%, 가정적 보호요인 5.0%임을 들어, 개인적 보호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개인적 보호요인 가운데서도 시설거주 청소년의 상황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은 중요하다. 청소년기가 되어야 가능성 지향 사고가 발달하므로 현실의 사건을 미래와 연결하여 삶의 의미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급격한 신체 발달과 인지발달이 이루어져 신체상과 자존감이 새롭게 형성되며, 사회성의 발달로 도덕성의 한 부분인 이타성이 폭넓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긍정심리학(Shelden & King, 2001)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는 이타성은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김택호, 2004).

이에 본 연구는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과 개인적 보호요인의 성차, 탄력성과 개인적 보호요인간의 관계, 탄력성에 미치는 개인적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연구 목표는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 생성에 있다. 그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시설거주 청소년의 성에 따라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 및 탄력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은 탄력성과 어떤 관계인가?
3.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이 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탄력성

Anthony(1974; Hernandez, 1993 재인용)는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정신분열증 부모들의 자녀를 '취약하지 않은 어린이(invulnerable child)'라고 표현하였다. 그 후 다른 연구자들(Luthar & Zigler, 1991; Masten & Garmezy, 1985; Hernandez, 1993 재인용)은 이 아이들의 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Hernandez, 1993). '비취약성'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는 성격특성인 반면에 '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변화와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이다. 탄력성은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현상이며(Rutter, 1990),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시련을 통과하거나 벗어나는 것이다(Walsh, 2002). 요컨대 탄력성은 객관적인 위험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회복하는 개인 또는 현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역경을 통해 형성·재형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적다. 청소년 쉼터에서 거주하는 가출 청소년의 경우, 쉼터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으면 탄력성도 높았다(조규필, 2004).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1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인 내외통제성이 높을수록, 위험요인인 우울·불안과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적을수록 탄력성이 높았다(박혜영, 2004).

2. 탄력성의 개인적 보호요인

Masten과 Read(2002)는 높은 위험 상황에서 더 좋은 결과를 예견하게 하는 인간의 자질(quality)을 보호요인이라고 하였고, Hernandez(1993)는 환경이나 개인내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개인·환경 자원을 보호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리하면 보호요인은, 객관적인 위험 상황에서 환경이나 개인내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개인·환경 자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결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다. 즉, 삶의 의미는 개인적인 비극이나 좌절을 경험한 개인이 이전의 심리적인 기능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생성(meaning-making)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self-worth)을 확인시키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Baumeister & Vohs, 2002).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상실과 외상의 조절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족 구성원을 잃고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의미'는 상실자체에 대한 이해와 상실경험에서 이득을 찾아내는 것(finding benefit)이다(Davis, Nolen-Hoeksema & Larson, 1998). 이정화(198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죽음이나 이별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부모 모두 생존한 대학생들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 수준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이 삶의 의미는 상실이나 외상 경험을 긍정적으로 조절하여, 변화하는 삶에 안정과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가져다준다. 삶의 의미는 정서적 안정의 주요인이기도 한데, 인생의 의의와 목적 수준이 높으면 자아개념 수준도 높았으며(박화조, 1983), 상태불안을 가장 높게 설명하는 변인도 삶의 목적 수준이었다(김찬희, 1991).

2) 신체상

신체상이란 자신의 몸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태도의 총합이며, 크기·기능·외모·잠재력에 대한 감정과 지각이다(Stuart & Laraia, 2001). 즉, 신체상은 일생을 통해 형성·재형성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신체상은 자기이해의 기초가 되며, 자기개념의 중심이 된다(김선주, 2004). 신체에 대한 개념은 전반적인 적응의 문제와 높은 연관이 있으며(이계원, 1993), 바른 신체상의 정립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Havighurst, 1972).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상을 객관적인 사실대로 지각하기보다 주관적으로 인식한다. 김선주(2004)와 조지숙(1992)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실재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에, 여학생은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구미회(1999)

에 의하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객관적 신체구조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으면 자존감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상은 정서·발달과 유의한 관계이다. 예컨대, 신체상 수준이 높으면 대인불안 점수가 낮았고(백남희, 2003; 박경애, 2002), 자존감 점수는 높았다(박항순, 1998; 박경애, 2002). 신체상이 높으면 우울 지각은 낮았고(박항순, 1998), 자기표현은 더 쉬웠다(이계원, 1993).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체상이 청소년에게 갖는 의미가 큰데도 신체상과 탄력성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신체상이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존감

자존감은 자아를 향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마음가짐이며(Rosenberg, 1965), 자기개념(self-concept)과 자기 평가의 심리적 상태로서, 긍정적 자기 확인에서부터 부정적 자기 손상에 이르는 척도 범위에 있다(Hewitt, 2002). 자존감은 인간 발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개인 정신 건강의 중추가 되고, 바람직한 환경 적응과 건전한 성격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어주경, 1998). 그러므로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재조명되는 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신정님, 1999).

자존감과 관련하여 우울 성향과 적응·부적응 행동(심희옥, 1997), 교사에게 당하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경험과 가치감(신정님, 1999), 신체상(안재현, 1996; 조지숙, 1992), 신체적 매력·왜곡(조지숙, 1992), 대인불안(박경애, 2002),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박영애, 1995),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윤용준, 1987)의 연구가 있었으나 탄력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거주 청소년의 자존감이 탄력성과 어떠한 관계인지 살펴보고자 하며, 자존감을 자신의 내·외적인 상태에 대해 스스로 갖는 전반적인 존중의 정도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4) 이타성

청소년들에게 이타주의는 자신의 불행을 더욱 크게 느끼는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Pipher, 1994).

이타성은 공감, 조력, 협력 등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표현되며, 강인한 사람은 확신 있는 행동과 이타적인 행동을 보인다(Wubbolding, 1988). Bar-Tal(1976)은 이타성이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타적 행동은 외적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정의에 대한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의도적 행동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 행동이다(조학래, 1996).

관련 연구에서 이타성 수준은 자원봉사활동 후 일관되게 높아졌다(김은숙, 2004; 조학래, 1996). 이현숙(1999)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타성 평균과 이타성의 하위영역인 공감, 조력, 협력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자율적이고 보람있는 참여를 했을수록 이타성 수준이 높았다. 이경주(2002)의 연구는 초, 중학생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의 결과들에서 이타성은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도덕성 발달의 중요한 하위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과 이타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타성과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타적 행동의 정의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으로 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13세부터 만24세의 남자 122명, 여자 133명, 총 255명이며,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전국 18곳의 시설(서울 193명, 타지역 62명)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다. 대상자의 연령은 만13-15세 77명, 만16-18세 128명, 만 19세 이상이 50명이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상자는 54.6%, 다니지 않는 대상자가 43.1%였다. 처음 시설에 들어온 시기는 초등학생 때가 29.8%, 중학생 때가 29.4%로 가장 많았고, 입소이유는 부모관련문제가 43.9%, 자신의 문제가 22.7%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탄력성이며, 독립변인은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이다. 이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인: 탄력성

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박은희(1996)가 발전시킨 40문항 중 3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감정통제 등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는 계속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을 의미하며, 활력성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환기적(evocative)으로 접근하는 능력, 낙관성은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31문항은 하위영역별로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이 각각 8문항씩이며 낙관성이 7문항이다. 제외된 9문항은 내적합치도가 낮은 감정통제 영역 8문항(Cronbach α=.44)과 낙관성 영역(Cronbach α=.64) 1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고, 하위영역별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이 각각 8-32점, 낙관성이 7-28점이다. 전체 문항의 총점 범위는 31-124점이며, 역문항(6개; 25, 30, 31, 35, 37, 40번)은 역채점하였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는 전체 문항 .89이며, 하위영역별로는 대인관계 .72, 활력성 .71, 호기심 .72, 낙관성 .70이었다. 상관분석을 통해서 탄력성의 구인적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는 탄력성 전체와 대인관계 .80, 탄력성 전체와 활력성 .87, 탄력성 전체와 호기심 .80, 탄력성 전체와 낙관성 .81이었다.

2) 독립변인: 개인적 보호요인

(1)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남궁달화(1980)가 번안한 Crumbaugh와 Maholick (1969)의 삶의 의미(Purpose In Life: PIL) 척도에서 김택호(2004)가 사용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삶의 즐거움 요인 5문항과 삶의 목적인식 요인 5문항이다. 각 문항

은 7점 Likert 척도이고, 전체 문항에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0-70점이다. 높은 점수는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뚜렷한 것을 의미하며, 낮은 점수는 실존적 공허 상태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는 전체 문항 .90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삶의 즐거움 요인 .86, 삶의 목적인식 요인 .83이었다. 상관분석을 통해서 삶의 의미의 구인적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는 삶의 의미 전체와 삶의 즐거움 .94, 삶의 의미 전체와 삶의 목적인식 .92였다.

(2) 신체상

신체상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정숙(2001)이 번안하고 김선주(2004)가 사용한 Mendelson, Mendelson, Andrews, Balfour와 Bucholz(1997)의 신체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 B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과 성인의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신체상 만족도를 측정하며, 긍정적인 문항 15개와 부정적인 문항 8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며, 전체 문항의 가능한 총점 범위는 23-92점이다. 부정적인 문항(8개; 4, 7, 11, 13, 17, 18, 19, 21번)은 역채점하였고,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는 이정숙(2001) 연구에서 .92, 김선주(2004) 연구에서 .89, 본 연구에서 .89였다.

(3)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어주경(1998)이 번안한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가치, 자신감, 만족도 및 자신에 대한 비하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각각 5개씩, 총 10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고, 문항 전체의 가능한 총점 범위는 10-40점이다. 부정적인 문항(5개; 3, 5, 8, 9, 10번)은 역채점하였고,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는 .81이었다. 이 척도는 고등학생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문항 수가 적은 편이어서 청소년의 측정도구로 적합하다.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었고, 타당도가 입증되었다(서울대 실천사회복지연구회·반포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 2004).

(4) 이타성

이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Bar-Tal과 Raviv(1979)의 돕기 상황 검사를 바탕으로 이생현(1993)이 개발하고 김택호(2004)가 수정한 18문항 중 내적합치도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하고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사회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도움행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공감영역 5문항, 협력·조력영역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고, 하위영역별로 가능한 총점 범위는 공감영역 5-20점, 협력·조력영역 10-40점이다. 전체 문항의 총점 범위는 15-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는 전체 문항 .87이며, 하위영역별로는 공감 .73, 협력·조력 .83이다. 상관분석을 통해서 이타성의 구인적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는 이타성 전체와 공감 .92, 이타성 전체와 협력·조력 .87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설거주 청소년의 성에 따라 개인적 보호요인 및 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개인적 보호요인과 탄력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탄력성에 대한 개인적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일괄투입 방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시설거주 청소년의 성으로 본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 및 탄력성

시설거주 청소년의 성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삶의 의미 전체($t=2.94$, $p<.01$), 삶의 의미 하위영역인

삶의 즐거움(t=4.07, p<.001), 신체상 전체(t=2.42, p<.05)에서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영역은 이타성의 하위영역인 협력·조력(t=-2.50, p<.05)과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영역(t=-2.07, p<.05)이었다.

<표 1> 시설거주 청소년의 성으로 본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 및 탄력성 (N=242)

측정 변인 \ 성별		가능한 점수범위	남자(N=117) M(SD)	여자(N=125) M(SD)	t
삶의 의미	전체	10-70	47.52(12.39)	43.21(10.79)	2.94**
	즐거움	5-35	22.69(6.73)	19.37(6.17)	4.07***
	목적인식	5-35	24.83(6.36)	23.84(5.59)	1.31
신체상		23-92	59.79(11.64)	56.25(11.19)	2.42*
자존감		10-40	26.89(5.32)	26.78(4.89)	0.17
이타성	전체	2-8	5.31(1.05)	5.50(0.89)	-1.51
	공감	1-4	2.61(0.62)	2.64(0.57)	-0.45
	협력·조력	1-4	2.70(0.53)	2.85(0.43)	-2.50*
탄력성	전체	4-16	10.89(1.74)	10.84(1.48)	1.01
	대인관계	1-4	2.76(0.48)	2.87(0.38)	-2.07*
	활력성	1-4	2.77(0.52)	2.70(0.45)	1.18
	호기심	1-4	2.69(0.51)	2.70(0.51)	-0.06
	낙관성	1-4	2.67(0.48)	2.57(0.52)	1.59

* $p<.05$ ** $p<.01$ *** $p<.001$

2.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과 탄력성간의 관계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은 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각 변인과 변인들의 하위영역들도 탄력성의 하위영역들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과 탄력성의 상관관계 (N=240)

독립변인 \ 종속변인		탄력성				
		대인관계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전체
삶의 의미	즐거움	.34***	.61***	.35***	.54***	.56***
	목적 인식	.52***	.67***	.43***	.57***	.67***
	전체	.45***	.69***	.42***	.60***	.66***
신체상 전체		.38***	.49***	.27***	.45***	.48***
자존감 전체		.47***	.58***	.30***	.59***	.58***
이타성	공감	.44***	.35***	.41***	.31***	.46***
	협력·조력	.63***	.40***	.39***	.40***	.55***
	전체	.58***	.41***	.45***	.39***	.55***

*** $p<.001$

첫째, 삶의 의미 전체와 탄력성 전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01$). 이는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삶의 목적 수준이 높으면 탄력성도 유의하게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삶의 의미 전체와 탄력성의 하위영역들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p<.001$), 그 중에서도 삶의 의미와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활력성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삶의 의미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는 능력과 가장 큰 상관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또한 삶의 의미의 하위영역들과 탄력성의 하위영역들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01$), 이 중 삶의 목적과 활력성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삶의 목적 수준과 활동적이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행동이 가장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냈다.

둘째, 신체상 전체와 탄력성 전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01$). 이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면 탄력성도 유의하게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상 전체와 탄력성의 하위영역들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p<.001$), 신체상과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활력성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상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는 능력과 큰 상관임을 보여준다.

셋째, 자존감 전체와 탄력성 전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으면 탄력성도 유의하게 높다는 의미이다. 자존감 전체와 탄력성의 하위영역들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p<.001), 자존감과 낙관성, 활력성간의 상관이 비슷하게 높았다. 이는 자존감이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성향,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는 능력과 큰 상관을 보인다고 해석된다.

넷째, 이타성 전체와 탄력성 전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01). 이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수준이 높으면 탄력성도 유의하게 높다는 뜻이다. 이타성 전체와 탄력성의 하위영역들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p<.001), 이타성과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이타성이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얻는 능력과 큰 상관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타성 하위영역들과 탄력성 하위영역들의 관계도 모두 유의하였다(p<.001). 그 중에서도 이타성의 하위영역인 협력·조력과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영역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대가 없이 도와주고 사람들과 협력하는 행동이 많으면 대인관계 수준도 높다고 해석된다.

3.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이 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량증폭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VIF는 변인간의 상호의존성 지수로 공차(tolerance)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VIF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김택호, 2004). 변인들의 VIF값을 산출한 결과 삶의 의미 1.66, 이타성 1.10, 자존감 1.68, 신체상 1.8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괄투입 방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226)

독립변수	B	β
삶의 의미	.06***	.41
신체상	.01	.06
자존감	.06**	.18
이타성	.60***	.38
상수	3.16	
R2	.61	
F	89.21***	

** $p<.01$ *** $p<.001$
주: β값은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산출된 표준화 회귀계수 값임.

네 가지 개인적 보호요인의 탄력성에 대한 전체 설명변량은 61%로 나타났다. 네 가지 개인적 보호요인 중에서 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삶의 의미(p<.001), 자존감(p<.01), 이타성(p<.001)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체상은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탄력성에 대한 개인적 보호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삶의 의미(β=.41)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이타성(β=.38), 자존감(β=.18)의 순서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설거주 청소년의 개인적 보호요인과 탄력성의 성차, 개인적 보호요인과 탄력성의 관계, 탄력성에 미치는 개인적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개인적 보호요인으로는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을 탐색하였으며, 대상은 전국 18개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이었다.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거주 청소년의 개인적 보호요인과 탄력성의 성차 분석 결과, 남자는 여

자보다 삶의 의미 전체와 삶의 의미 하위 영역인 삶의 즐거움, 신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자는 남자보다 이타성의 하위 영역인 협력·조력,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영역이 유의하게 높았다. 우선, 여자청소년의 삶의 의미 평균 점수가 남자청소년보다 낮은 이 결과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삶에 대한 재미·변화를 적게 지각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능력이 낮다는 뜻으로, 여자청소년이 삶에서 찾는 긍정적인 의미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특히, 삶의 의미 하위영역인 삶의 즐거움에서 여자청소년의 평균이 남자청소년보다 낮은 것은 현재 삶에서 느끼는 만족·의욕 수준이 남자청소년보다 낮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여자청소년의 변인들이 남자청소년보다 높거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시설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진로의식 성숙도가 높았고(변은진, 2002), 재학률이 높았다(신동헌, 2002). 염미영(1987)은 특성불안과 자아개념 수준에서 성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에 비해 여자의 삶의 의미 평균이 낮은 본 연구 결과는, 여자청소년이 현재에는 적응상태를 보이더라도 내적 만족과 미래의 가능성은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신체상 평균 점수는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높았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 신체의 크기·기능·외모·잠재력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로 가정거주 청소년의 신체상에 관한 연구 결과들(박경애, 2002; 이정숙, 2001; 정복희, 2003)과 맥을 같이 한다. 연구들에서 보듯이 일관되게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대중매체(명재원, 1998)와 사회문화적 영향(김선주, 2004)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매체의 양성평등성을 높이고, 여성의 신체상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상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며, 인식과정에 타인의 평가가 큰 영향을 끼치므로(이정숙, 2001), 청소년의 신체상에 대한 주변인들의 긍정적 표현이 중요하다. 반면, 이타성의 하위영역인 협력·조력 평균 점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다른 사람을 대가 없이 도와주고 사람들과 협력하는 행동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거주 여학생이 이타성 평균과 이타성의 하위영역인 공감, 조력, 협력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이현숙(1999)의 조사와 맥락이 같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협력 대상이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져 이전보다 높은 협력·조력 수준이 요구되므로, 남자청소년에게 협력·조력 능력의 향상을 위한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평균 점수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여자가 계속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이 높다는 의미로, 사회 적응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관계,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정보사회(김언주, 2000)에서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는 노력은 취업을 앞둔 청소년에게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인들의 성차는 성에 따라 관심과 중점 사항이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어 흥미롭다. 즉, 남자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중점을 두고, 여자는 타인과 타인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결과가 타고난 기질의 남녀 차이인지 환경이나 사회화의 영향인지는 더 많은 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자는 타인과의 관계에, 여자는 자신의 삶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각각의 개인적 보호요인과 탄력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였다. 즉,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이타성 수준이 높으면 탄력성 수준도 높았다. 우선, 삶의 의미와 탄력성은 다른 변인보다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삶의 즐거움을 많이 지각하고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위험 상황에서의 적응 수준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탄력성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활력성, 낙관성이 삶의 의미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삶의 의미 수준을 높게 지각하면 활력적으로 활동하고 낙관적인 대처를 많이 한다는 의미로, 스스로 해결할 과제들이 많고 현재 상황이 취약한 시설거주 청소년에게 삶의 의미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신체상과 탄력성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신체상 수준이 높으면 탄력성 수준도 높다는 의미이다. 특히, 신체상과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활력성이 가장 높은 관계를 나타낸 것은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능력도 높다는 뜻으로, 활동력이 많은 청소년에게 신체상이 갖는 의미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존감과 탄력성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자신의 내·외적인 상태에 대한 존중이 높으면 위험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적응과 회복력도 높다는 뜻이다. 탄력성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낙관성과 활력성이 자존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존감이 높으면, '잘될 거라' 는 관점과 적극적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태도도 높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자신에 대한 습관적인 판단과 평가가 청소년들의 위험 사건 극복과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타성과 탄력성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하는 행동이 많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하위영역간 상관에서,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와 이타성의 하위영역인 협력·조력의 관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에 협력·조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셋째,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에 대한 개인적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탄력성에 대한 영향력은 삶의 의미, 이타성, 자존감 순으로 유의하였고, 신체상은 유의하지 않았다. 우선, 시설거주청소년의 탄력성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 변인은 삶의 의미였다. 기존의 개인적 보호요인은 대부분 행동의 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시적인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겨져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삶의 의미 변인(김택호, 2004)이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에도 주요한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삶의 의미 다음으로 탄력성에 대해 설명력이 큰 변인은 이타성이었다. 이는 타인을 대가없이 돕는 행동이 많고 도우려는 마음가짐이 클수록 위기에서의 회복력도 커진다는 의미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보호주체가 되는 것의 가치를 보여준다. Walsh(1998)는 탄력적인 가족은 상실을 경험하고도 이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비극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줌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한다고 하였다. 시설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취약한 가정환경과 시설거주라는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타성이 탄력성을 비교적 높게 설명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삶의 의미와 이타성 다음으로 탄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자존감이었다. 이 결과는 자존감이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나타낸다. 이는 취약한 가정·사회 환경에서도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유지함으로써 위험사건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체상은 탄력성에 대해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신체상이 청소년기에 큰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시설거주 청소년의 탄력성에는 유의하게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가정거주 청소년에 비해 위험 사건 경험이 많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에게는, 삶의 가치와 목적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어울리며, 자신감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보다 더 절실한 대처방법임을 시사한다.

위와 같이 탄력성에 대해 삶의 의미와 이타성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은 본 연구 결과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이 힘든 환경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긍정적 의미를 생성하고 더불어 사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밝은 면을 보여준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생활경험이나 취약한 환경들이 곧 개인의 취약성인 것은 아니다. 취약한 환경에서도 탄력적인 청소년이 존재하며(김정득, 2003; 박현선, 1998), 오히려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보호요인과 탄력성에 관한 심도 있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본 연구 대상자 중 서울에 위치한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다수였고, 천주교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특정 종교의 특성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고른 지역과, 다양한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시설거주 청소년이 대상이면서도, 가정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던 보호요인을 다루었다. 이것은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적확한 보호요인들의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양적 연구방법이 갖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병행된다면 보다 내실 있는 결과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범위가 넓어 청소년기 발달에 따른 변화의 영향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발달 단계를 고려한 대상 선정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시설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긍정적 측면인 탄력성에 대해 알아본 점과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삶의 의미, 이타성, 자존감 및 신체상이 탄력성에 대해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지 탐색한 점이다.

결론적으로, 시설거주 남자청소년은 자신, 여자청소년은 인간관계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성차가 있었다. 또한 삶의 의미, 신체상, 이타성, 및 자존감이 높으면 탄력성도 높아 탄력성 향상을 위한 개인내적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탄력성에 대한 삶의 의미, 이타성, 자존감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 각 변인들이 탄력성의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강희경(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pp. 93-102.

구미회(1999). 청소년기 신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지은(2002).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해수(2002).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주(2004).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신체상 만족도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경·강문희(2005).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 분석. 아동학회지, 제26권 제1호, pp. 261-278.

김언주(2000). 21C 정보화 사회와 인성교육. 교육심리연구, 제14권 제1호

김은숙(200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수원 성 빈센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득(2003). 문제성 음주부모 청소년 자녀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세(1991). 일반학생, 근로학생 및 시설학생 청소년의 자아실현 수준 비교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찬희(1991). 의미치료의 이론에 따른 삶의 목적 수준과 부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택호(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궁달화(1980). *Purpose in Life among Korean High School Sen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regon State University.

명재원(1998). 여고생의 대식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애(2002). 청소년의 신체상, 자존감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은희(1996).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항순(1998). 비만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현정(2001). 시설청소년 학업부진의 문제점과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영(2004).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화조(1983). 고교생의 삶의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남희(2003). 청소년의 신체상, 자의식, 역기능적 신념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승지(2003). 시설 거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행요인 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은진(2002).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진로의식성숙, 불안 및 내외통제성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서울대 실천사회복지연구회·반포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2004). 사회복지 척도집. 서울: 나눔의 집.

신동헌(2002). 사회적 지지가 시설보호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정님(1999). 교사 폭력과 남자중학생의 학교생활의 질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제18권 제1호, pp. 39-52.

안재현(1996). 혈액투석 환자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염미영(1987). 시설 청소년의 특성불안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성지(2001). 일반청소년과 보육시설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 비교.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용준(1987).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기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주(2002). 청소년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계원(1993). 청년기의 신체만족도가 불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심리연구, 제31권, pp. 15-27.

이생현(1993). 아동기의 이기심과 이타심의 발달과 적응도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숙(2001). 중·고등학생의 성별, 비만, 타인의 평가와 신체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화(1986). 대학생의 생의 의미추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숙(199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영옥(2001). 시설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현(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복희(2003).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자기상(Self-Image)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해수(1999). 양육형태에 따른 청소년의 시설병적 특성 비교 연구: 대숙사육아시설,

SOS어린이마을, 일반가정 청소년의 시설병적 특성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규필(2004).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쉼터의 개입기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지숙(1992).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 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학래(1996).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현경(1995). 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일경(1996).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r-Tal, D.(1976). *Prosocial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Bar-Tal, D. & Raviv, A.(1979). Consistency of helping behavior measures. *Child development, Vol. 50 No. 4,* pp. 1235-1238.

Baumeister, R. F. & Vohs, K. D.(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608-61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Crumbaugh, J. C. & Maholick, L. T.(1969). *Manual of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in life test.* Munster Indiana: Psychometric Affiliates.

Davis, C. G., Nolen-Hoeksema, S. & Larson, J.(1998). Making sense of loss and benefiting from the experience: Two construals of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5 No. 2,* pp. 561-574.

Havighurst, R. J.(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 Inc.

Hernandez, L. P.(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Hewitt, J. P.(2002).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lf-esteem, In C. R. Snyder, Shane F.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lohne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5,* pp. 1067-1079.

Masten, A. S. & Read, M-G. J.(2002). Resilience in development, In C. R. Snyder, Shane F.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endelson, B. K., Mendelson, M. J., Andrews, J., Balfour, L. & Bucholz, A.(1997). Three aspects of body esteem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Differential relations with weight and self-esteem.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17 No. 1,* pp. 145-160.

Pipher, M.(1999). 내 딸이 여자가 될 때. 김영혜·김영재(역). 서울: 문학동네. (원본 발간일, 1994, Saving the Selves of Adolescent Girls).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tter, M.(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 Weintraub, S(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elden, K. M. & King, L.(2001).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No. 3,* pp. 216-217.

Stuart. G. W. & Laraia. M. T.(2001).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 Louis: Mosby.

Walsh, F.(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양옥경·김미옥·최명민(역). 서울: 나남출판. (원본 발간일,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Wubbolding, R. E.(1992). 현실요법의 적용. 김인자(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본 발간일, 1988, Using Reality Therapy).

ABSTRACT

Relationships among Meaning of Life, Body Image, Self-Esteem, Altruism, and Resilience in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Lee, An-Young* · Kim, Jin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meaning of life, body image, self-esteem, altruism, and resilience in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as well as how these variables affected on resilience.

The subjects were two-hundred and fifty five adolescents (122 boys, 133 girls) aged from 13 to 24 in 18 residential welfare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Purpose In Life (Crumbaugh & Maholick, 1969)', 'Body Esteem Scale(Mendelson, Mendelson, Andrews, Balfour, & Bucholz, 1997)', 'Self-Esteem Scale(Rosenberg, 1965)', 'Altruism Scale(Lee, 1993)', 'Ego-Resiliency Scale(Block & Kremen, 1996)'.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meaning of life, body image, altruism and resilience as a function of sex. That is, boys bettered in body image, meaning of life, and happiness of life than girls. However, girls had higher degree of cooperation ·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 Korea Counselling Center

**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meaning of life, body image, self-esteem, and altruism and resilience. This means that where the meaning of life, body image, self-esteem, and altruism are high, the resilience becomes high.

Third, the adolescents' meaning of life, self-esteem, and altruism had positive influences on their resilience, but body image had no influence.

Key Words :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meaning of life, body image, self-esteem, altruism, resilience

투고일 : 10월 29일, 심사일 : 12월 7일, 심사완료일 : 12월 18일